ENR 발표 '2007년 뉴스메이커 25인상' 수상

## 김 수 홍 AMEC Korea 대표 겸 인천대교(주) 대표이사

# "인천대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시키는 사업 모델"

"영종도 출신으로 '고향에 다리 하나 놓고 싶다'는 바람은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소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판문점 설계와 국내 최초의 아파트인 마포아파트 건축 등을 담당하셨던 부친의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였으니까요. 이렇게 품어왔던 생각이 외자 유치와 연결되어 이제 현실로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스무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길에 올라 그곳에서 수학하며 국제 비즈니스 감각을 익힌 한 중년의 사업가를 세계 건설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한국 최장, 세계 5위 규모의 인천대교 시행사인 인천대교(주) 김수홍 대표이사가 주인공. 그는 지난 4월 세계적 권위의 건설 전문지인 ENR이 발표하는 '올해의 뉴스메이커 25인'상 식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2007년 한 해 동안 세계 건설업계에 혁신성과 성과 면에서 큰 두각을 드러낸 화제의 인물 25인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는 뉴욕 메리엇 마르퀴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 연설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최첨단 교량인 인천대교는 규모뿐만 아니라 한국 민간 투자 사업에서 모범적인 사업 구조로 주목 받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인천대교 주관사인 영국 에이멕(AMEC)사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기술, 금융, 상업, 법률 등 사업 시행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시키는 우수 사업 모델을 만들고, 우수한 PM 기술과 조직을 바탕으로 두 국가간 제도적 ·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ENR은 창간 100년이 넘은 건설 전문 잡지로 세계 주요 건설 현장을 소개하고 세계 건설업체들의 순위를 매겨오고 있다. 또한, 매년 '올해의 뉴스메이커'를 선정해 발표하는데 이는 1년 동안 ENR이 취재하여 소개한 건설 현장 및 인물 중 가장 혁신적이고 고부가가치 성과를 이뤄낸 인물들을 뽑은 것이다. ENR은 지난해 5월 인천대교 건설 사업을 커버스토리로 다루었다.

김수홍 대표는 국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PPP)에 혁신적이고 투명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민자사업 최초로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를 분리하고 시공사를 투명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ENR 측은 "기존 관습을 깨뜨려 비용을 절감시켰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모범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국제 경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의 성공적인 교량 건설 사업을 이루어 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IMF 구제금융 시절, 우리나라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경제협력 사업 중 하나로 인천대교 건설 사업을 제안한 김 대표는 캐나다의 대표 건설사였던 아그라(AGRA) 한국 지사장으로 인천대교 사업의 태동과 전개를 이끌었다.

이후 2000년 아그라사가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AMEC에 합병된 뒤 이 회사의 한국 법인장으로 재임명되어 인천대교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는 AMEC에서 아시아를 관장하는 AMEC Finance Asia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총 1조 5,9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인 인천대교는 총 연장 12.3km의 해상 사장교로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바다위 고속도로이다. 인천대교는 영국의 건설 전문지 「컨스트럭션 뉴스」에 '경이로운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금융전문지인 「유로머니」가 선정하는 '2005년 아 · 태 지역 교통 인프라 부문 최우수 PF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적인 우수성과 모범적인 금융 구조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CJ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